



보도 시점 2026. 10. 25.(일) 11:00
10. 26.(월) 조간

배포 2026. 10. 23.(금) 16:00

농촌진흥청, 민관합동 농업생명공학 연구 안전관리 현장 점검 실시

- 26일부터 4일간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민관합동조사
- 대학, 시민단체와 10개 기관의 연구시설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2026년 하반기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민관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에 따라 1년에 2차례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고, 시설 관리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기관과 올해 환경방출 실험 기관 10곳이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구비 요건, 안전관리 운영 현황, 주변 식생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연구시설 주변에 있는 교배 가능한 식물을 조사하고, 간이 진단기로 현장을 분석한다. 필요한 경우, 유전자 분석(PCR) 등 정밀 분석을 진행해 유출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시설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내년도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이기종 과장은 “이번 민관합동 조사로 농업생명공학 연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안전관리 모형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6년 하반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민관합동조사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책임자	과 장	이기종 (063-238-4701)
	생물안전성과	담당자	연구사	박종찬 (063-238-4714)
<div><div>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div><div>농업의 모든 것</div><div></div><div>농사로</div></div>				

□ **목적**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 2026년 하반기 LMO 위해성 평가기관 및 농업용 LMO 연구시설 내 실험에 따른 비의도적 환경방출 여부 조사
 -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보고 및 검사)

□ **LMO 연구시설 및 환경방출실험 승인 기관 민관합동 점검**

- 점검대상: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 및 2026년 환경방출 실험 승인** 기관 등 10개소
 - * 7개소: 농과원,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서울대, 중앙대, 생명연
 - ** 3개소: 산림원, 전남대, 경희대
- 점검대상: 2026. 10. 26 ~ 29.(4일간)
- 점검자: 국립농업과학원(생물안전성과), 대학(전주대), 시민단체(GMO 반대전국행동, 한살림연합 등)
- 점검내용: LMO 연구시설 관리 실태 점검 및 격리포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 격리포장 주변 교배 가능 재배종·근연종 분포 등 식생조사 및 시료 현장 분석

<참고> 2026년 상반기 농업용 LMO 연구시설 민관합동조사 사진



LMO 연구시설 점검



LMO 연구시설 주변 환경영향 조사